

기아차 취업 사기 복마전... 100여명 40억원대 피해

전 노조원 등 3명 구속... 19억 챙긴 전 노조 부지회장 추적 아들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 뜯기기도 경찰, 광주공장 인사 관리자·고위직 대상 수사 확대키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둘러싼 취업사기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차지단체 고위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기아차 취업 희망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범이 구속(광주일보 5월 29일자 6면)된 데 이어 기아차 전 노조간부 등이 연루된 수십억원대 취업사기가 또 다시 터졌다. 취업을 청탁했다가 돈을 뜯긴 취업희망자만 100여명을 웃돈다. 경찰은 특히 기아차 전 노조간부에게 취업을 청탁한 자 중 상당수가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업무 관련자와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관련한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취업사기 불똥이 기아차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기아차 광주공장 정규직 등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56명에게 18여억원을 받은 기아차 사내 하청업체 사원 A(37)씨, 기아차 전 노조 대의원 B(41)씨, 취업알선브로커 C(61)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D(여·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부지회장 E(48)씨가 취업 등을 명목으로 29명으로부터 총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검거에 나섰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파견·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명에게 광주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1인당 1500만원에서 4700만원까지 총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출임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처남을 동원해 진곡산단 내 기아차 협력업체를 견학시켜주는 수법으로 취업희망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브로커 C씨는 노조 경력과 회사

간부와 친분 등을 내세워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1인당 500만~1억원씩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2004년에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취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해고된 바 있다. 취업브로커 C씨는 B씨에게 취업희망자를 알선하고 1억300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들에게 속아 1억원 상당의 돈을 뜯긴 김모(여·68·고흥군)씨는 미혼인 40대 초반 아들의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평생 막노동으로 모은 전 재산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뿐 아니라 이번 취업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근무환경이 열악

한 곳에서 밤낮 없이 일해 모은 돈을 취업 청탁 자금으로 전달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 광주공장 노조 부지회장 E씨의 수십억원대 취업사기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씨는 노조간부 신분을 내세워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취업희망자 29명에게 1인당 3000만~1억5000만원씩 총 19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사내하청 근로자 A씨에 대한 취업사기 첩보를 수사하던 중 전직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피해가 더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E씨는 지난해 말부터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은 E씨에게 소개비를 받고 취업희망자를 알선한 전·현직 기아차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E씨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희망자 중 실제 기아차에 채용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채용과정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E씨에게 2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돈을 줬으며, 경찰조사에서 "채용대가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범이 가로챈 돈이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됐는지 여부 등 구조적 채용비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인정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 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자 혐오 표현 자제합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전국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추문화대응네트워크 회원들이 30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전국지방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정폭력 남편 숨지게 한 70대 아내 집유

살인혐의 무죄...상해치사 적용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7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이 범행 또한 B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으며 재판부도 A씨의 살인 혐의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남편 B(당시 79세)씨와 마다툼을 하다가 길이 84cm의 철제 내발 지팡이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남편을 두고 양로원에 다녀온 뒤 같은 날 오후 7시께 숨겨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 고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까지 받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수십 년간 술을 마시고 폭행과 폭언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또 다투게 돼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원 간호과장이 수년간 태움·갑질"

청와대 청원 글 일파만파 "폭언·야간근무 배정 괴롭힘" 전남의 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간부 간호사가 수년간 '태움'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움은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은어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하면서 '제가 될 때까지 활활 태운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최근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3일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부 A(여)간호사의 태

움과 갑질 행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 임원 남편이 무기인 간호과장의 태움과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해당 청원에는 30일 오후 5시까지 1400여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19년차 간호사'라고 밝힌 익명의 작성자는 "간호과장의 태움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만 둔 간호사만 10명이 넘는 다"며 "간호과장은 일이 서툰 신규 간호사에게 '그만 돌 거면 빨리 그만둘라', '찍히면 그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밤 11시-오전 7시) 위주로 스케줄을 짜

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호과장이 대기업 간부인 남편과 전 전남도 고위직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일하려면 찍히지 말고 나한테 잘 보여라'라는 등의 말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해당 간호과장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 중 90%는 사실이 아니다"며 "야간 근무도 규정대로 처리했고 예외적으로 1~2일을 더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다음달에 빼주는 식으로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신규 간호사를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남편과 전남도 관계자들은 전혀 친분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라 일부 말이

의도와 다르게 기본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청원글이 올라지자 이 의료원의 전·현직 간호사 9명은 간호과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투서를 노조에 제출하고 고충처리 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원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4차례 열었지만, 병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보건의료노조도 30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태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병원측에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기습 강우로 하천 고립 근로자들 119 출동 구사일생

상대발 ○...30일 오전 기습 강우로 하천에 고립됐던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사일생. ○...광주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밑에서 광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준설작업을 하던 강모(41)씨 등 작업자 2명이 갑자기 형성된 급류 때문

에 고립됐으나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는 것.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1시간 동안 최고 6.5mm의 비가 내렸는데,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 하천이 급격히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